

## 2007 개정 초등 사회과(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용어의 구조적 패턴 분석

임 영 태(인천발산초등학교 교사)\*

---

### 《 요 약 》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사회(역사 영역) 교과서의 역사용어를 구조적 패턴으로 분석하여 학습자가 역사용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개별적 이해의 방식에서 구조적 이해의 방식으로 전환 가능한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해 교과서를 전사하여 역사용어를 추출한 뒤,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진 역사용어를 단일용어, 합성용어, 파생용어로 분류하여 그 용어의 조어(造語)적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일용어는 대부분 2음절로 이루어진 용어이며 합성용어는 2+2 형태의 단일용어+단일용어의 조어적 패턴, 2+3+2 형태의 단일용어+파생용어+단일용어의 조어적 패턴, 2+2+2의 확장적 패턴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파생용어는 2+1 또는 1+2 형태의 단일용어(어간)+접사로 합성되어 3음절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접미사로 구성된 용어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기본 역사용어 학습과 더불어 역사용어의 구조적 패턴을 역사용어의 인지언어학적 스키마로 학습한다면 학습자의 역사용어 이해에 효과적일 것이다.

주제어 : 역사용어, 구조적 패턴, 스키마, 단일용어, 합성용어, 파생용어

---

### I. 문제 제기

용어란 '일정한 분야에서 주로 쓰는 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일반적 용어와 전문적 용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전문적 용어란 사전적 의미로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하는데 어떤 텍스트가 특정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이다(조은경, 2000). 이러한 정의를 역사라는 학문에 적용하면 역사용어란 역사

---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zenogi@hanmail.net

라는 학문적 영역에 관련되어 역사 서술 텍스트를 구성하는 전문용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 서술에는 역사용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역사교육내용은 모 학문인 역사는 학문적 특성상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여 학습자에게 인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서술적인 체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습자의 주된 교재인 역사 교과서 역시 역사적 사실을 설명의 형태로 서술하여 나타내고 있다. 역사 교과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인간 활동과 경험을 탐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과서에서 언어와 그것의 표현물인 문자가 핵심적인 의사전달매체가 되며 이들을 언어와 문자로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다수 사용될 수밖에 없다(이문기, 2005). 따라서 역사 교과서에 전문용어인 역사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역사용어는 역사 교과서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개념들을 압축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중요한 학습 요소가 된다.

역사교육내용에 대한 많은 관련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 학습자가 역사과목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로 내용과다, 반 내러티브적인 딱딱한 서술체제, 압축적인 표현 등의 세 가지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의 근저에는 학습자들이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역사용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역사용어의 이해에 관한 문제는 비단 교과서 서술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사 역시 설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역사용어 또는 개념용어들의 힘을 빌려 설명하기 때문에 역사용어에 대한 학습자 이해는 역사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요소이다.

초등학교 역사교육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 및 민족사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것(교육과학기술부, 2011)이고 이를 위해 역사적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추체험 및 공감적인 이해, 탐구, 가치·판단 등의 기능 영역의 학습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교육 과정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교과서의 텍스트의 이해이며 텍스트의 이해는 곧 학습자들이 역사용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해진다. 결국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역사용어의 이해가 역사교육의 가장 일차적이면서 역사학습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건적인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용어를 학습하는데 학습자가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바로 학습해야 할 역사용어의 과다에 있다.<sup>2)</sup> 그러나 앞서 말했듯 역사 서술에는 역사용어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역사용어를 학습해야만 한다.<sup>3)</sup> 이러한 문제

2) 이외에도 역사용어의 추상성, 중첩성, 한자기반 역사용어의 난해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3) 교과서에 사용되는 역사용어의 학문적, 역사적 적합성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선미, 2008: 『현행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의 역사 내용어에 대한 연구: '애국계몽운동'을 중심으로』 참고) 이긴 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역사용어를 중심으로 그 구조적 패턴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 이유는 역사용어가 학계 또는 연구를 통해 합의되어 교과서에 서술되더라도 일정한 한자 조어적 패턴을 가지고 만들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역사용어의 사용 및 학습자를 배려한 역사용어 사용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역사 교과서의 역사용어는 학습자를 배려하여 용어를 서술하는 방안이 수용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이문기(2005)는 각종 제도나 사물의 명칭과 같은 고유명사는 원래 한자어이기 때문에 도저히 쉽게 풀어쓸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역사가의 해석이나 가치판단이 포함된 역사용어나 개별적 사실을 묶어 이루어지는 개념이나 일반화를 통해 성립된 역사용어들은 만약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계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용어 연구의 시발점이었던 정선영(1994)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사용어의 구조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조화된 역사용어라는 것은 역사용어가 일정한 구조적 특징 즉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지형적 명칭이나 이름 등의 고유명사는 이러한 구조화의 연구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고유명사를 포함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역사용어의 거의 대부분이 한자어라는 특징을 인지한다면 역사용어 역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한자어는 일종의 성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조어 생산력이 뛰어나다(장슈엔원, 2010). 이러한 조어적 특징 때문에 우리말화 된 한자어들이 역사용어로 사용되었고 현재에도 생산되고 있다. 교과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학습주제 제시 용어 중 ‘왕권강화’ 등의 4자를 띄고 있는 용어들은 이러한 성어의 형태로 구조화된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용어가 한자어의 구조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반만년 동안 한자문화권이었던 우리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역사용어 선정 원칙은 특정 사건의 명칭을 당시 사용하던 용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든 한자문화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역사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료의 대부분은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한자를 사용했던 당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롭게 정의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명칭 역시 한글화된 한자어로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용어의 구조를 알아보고 그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수많은 역사용어를 몇몇 패턴으로 단순화시켜 구조적으로 학습 가능하게 하는 시도의 기초적인 연구이다. 용어의 구조를 안다는 것은 역사용어에 대해 학습자가 스키마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많은 개별적인 용어들을 구조화하여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역사용어에 대한 이해는 관련된 역사적 사건의 맥락을 통해 이해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의미 이해는 학습자가 진전된 학습과정에서 또는 학습 후에 일어나는 일종의 재구조화된 수준의 언어 이해 단계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처음 접하는

4) 박행숙(2005), 한정운(2002)의 연구 결과 초등학교 학습자는 물론 중학교 학습자들 역시 형식적 조작기의 용어 이해가 어렵다는 결론을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맥락적인 역사용어의 이해보다는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역사용어 해독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계에선 주어진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용어 이해력이 필요한데 구조적으로 이해되는 용어란 바로 해석적인 용어 이해를 말한다.

이에 본고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 교과서의 역사용어들을 추출 및 분류하여 이들 용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패턴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역사용어에 대한 언어학적 구조 분석을 통해 앞으로 행해질 역사용어 연구의 언어학적 기초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Ⅱ. 한자용어의 언어 구조적 특징

역사용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의 조어적 구조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역사 교과서의 역사용어 구조 패턴을 분석하는 준거를 도출할 수 있는 전제적인 작업이다. 본 장에서는 정보처리 이론과 인지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구조적 용어 학습과 스키마 형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한자어, 한자성어의 언어학적 구조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역사 교과서에 쓰이는 용어 분류

역사 교과서에 쓰이는 용어(terb)는 언어적 표현으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대상에 대한 명칭(designation)으로서 어느 특정 분야 전문언어(special language)로 사용되는 하나의 개념(concept)이 할당된 표현의 단위를 말하며(조은경, 2000) 언어학적으로 기초어휘, 사고도구어, 전문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 가. 기초어휘(basic vocabulary)

기초어휘는 모든 의사소통에 있어서 폭넓게 사용되는 언어로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단어들이다(이연우, 2007).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는 이미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된 연구들의 동향은 주로 어휘의 사용 빈도를 준거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위 빈도 10%를 선정하거나 현재 사용되는 국어의 단어들을 빈도순에 의해 1~7등급 까지 분류하고 그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1등급 단어를 기초어휘로 선정하는 등 현재 사용되는 어휘들을 중심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언어를 추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초어휘는 역사 서술에도 등장하게 되지만 일상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뜻을 해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역사용어로서 특별한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

사고도구어에 대하여 신명선(2008)은 학술텍스트에 사용되는 단어들 중 기초어휘와 전문용어를 제외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를 빌리자면 역사 서술에 사용되는 사고도구어는 역사 서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 서술에 등장하는 ‘간섭’, ‘강화’, ‘교류’, ‘개척’, ‘개혁’ 등은 다른 학문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사고도구어는 한자어, 탈주관성, 중립성, 다수의 유의어를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신명선, 2008)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고도구어는 특정 학문에서는 사고도구어로 사용되고 다른 특정 학문에서는 전문용어로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사고도구어의 특징은 곧 사고도구어가 일정 정도의 전문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며 동시에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용어임을 뜻한다(이연우, 2007).

사고도구어는 일반적으로 역사 서술에서 사고 및 논리 전개를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간섭기’, ‘대외교류’, ‘삼국간섭’, ‘왕권강화’, ‘강동6주의 개척’ 등과 같이 합성어 및 구어로서 역사용어를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용어에는 구체적으로 역사적 문제를 표현하는 용어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 성격을 지니는 역사적 개념들까지 역사용어의 범주에 포함시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이문기, 2005) 본 논문에서는 사고도구어 중 합성어적인 역사용어를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사고도구어를 역사용어로 다루기로 한다.

## 다. 전문용어(technical term)

전문용어는 특정한 학문에서만 나타나는 용어를 말한다. 따라서 역사라는 학문에서 나타나는 전문용어는 다른 학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전문용어들은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다.

역사 서술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 ‘봉기’, ‘임금’, ‘귀족’, ‘신분’ 등과 같이 단일용어로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농민봉기’, ‘신분제도’ 등과 같이 합성어적인 성격을 가진 전문용어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역사 서술에 쓰이는 용어 중 기초어휘는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관계가 있는 용어이고, 사고도구어는 타학문에도 적용되는 용어이며 전문용어는 역사학에서만 쓰이는 용어로, 사고도구어 중 합성어의 성격을 갖는 역사용어에 관계하는 용어와 전문용어가 역사용어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다음 문장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64p)**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갑오개혁, 자주독립은 주로 역사에서 사용되는 전문역사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존, 기초 등은 주로 문장의 논리적 전개 및 사고에 필요한 사고도구어이다. 그리고 청나라라는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역사에서만 존재하는 전문용어이다. 이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갑오개혁, 청나라, 의존, 자주독립, 기초’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사고도구어는 교과와 특성상 문장의 맥락 속에서 용어의 의미가 다소 달라지긴 하나<sup>5)</sup> 학습자가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에 반해 전문용어인 ‘갑오개혁, 자주독립, 청나라’는 학습자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처음 접할 가능성이 크며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만 문장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전문용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조어 형성에 필요한 용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갑오개혁’, ‘자주독립’은 분명한 역사용어지만 ‘개혁, 자주’라는 사고도구어와의 합성으로 조어진 역사용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혁, 자주’와 같은 사고도구어를 역사용어의 범주에 넣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조어 형성의 구조를 분석하면 모두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오개혁과 자주독립은 2+2 형태인 ‘갑오+개혁, 자주+독립’의 형태로 조어되어 있고 청나라는 고유명사이긴 하나 ‘청+나라’의 1+2의 구조로 조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이 세 용어들은 독립적인 단어들이 합쳐진 합성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역사용어의 조어적 특징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역사용어가 한자 조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 한자어의 구조적 패턴 인식과 인지언어학적 스키마 형성

인지부하이론에 따르면 교과서 서술에 사용되는 과다한 역사용어의 양은 학습자에게 인지과부하를 일으켜 학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sup>6)</sup> 문장의 맥락을 통해 용어의 뜻을 추론하는 것 역시 역사용어가 다수 사용되는 문장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역사용어의 구조를 스키마로 형성한다는 것은 학습자에게 인지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5) 예를 들어 수학과와 역사과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초라는 단어의 맥락적인 의미를 해석해보면,

수학과: 수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산 능력이 필요하다.

역사과: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두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초란 용어는 다소 문맥상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에서의 기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나타내는 일종의 대명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장에서의 기초는 근간(根幹)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처럼 사고도구어는 문맥상에서 다소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뜻을 알고 있다면 문장을 해석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6) 이은상(2009)은 인지부하이론에서 일반적으로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인지 자원의 양이 인지 구조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용량을 초과할 때 인지과부하가 발생한다고 하며 이 때 발생한 인지과부하를 학습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교과서의 많은 개별적인 역사용어들을 부호화(encoding)하여 뇌에 저장한다는 뜻이다. 정보처리 이론에 의한 정보의 처리 관계에 대해 이은상(2009)의 연구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들이 교사의 설명이나 청각적으로 듣거나 교과서의 설명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여 이해하려고 할 때 작업 기억(working memory)<sup>7)</sup>은 10~20초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5~9개의 정보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입력된 정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의미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채 5~9개의 정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리하는 입력정보의 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입력정보의 크기와 복잡성, 정교성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업 기억의 공간 내에서의 정보처리의 양과 관련하여 스키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키마는 입력정보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게 해 주어 작업 기억의 공간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수를 줄여주게 된다.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일관된 경험으로 연합시킬 수 있다.

뇌 과학에 기반 한 정보처리 연구는 역사용어 학습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학문적 특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등장하게 되는 많은 역사용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역사용어에 대한 스키마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등의 용어가 등장할 때 청킹(chunking)<sup>8)</sup>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미묶음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구조적으로 2+2 형태의 구조 패턴을 가지는 역사용어로서, ‘제도’라는 반복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학습자들이 ‘토지, 정치, 경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몰라도 어느 정도 용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학습과정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맥락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용어의 패턴에 대해 구조적으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새로운 용어를 접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동원하여 연관성 내지 유사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며 동화와 조절을 통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처리된 용어는 다시 부호화되며 학습자의 장기기억으로 전달되어 학습자가 처리하는 용어의 양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용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으며 유추는 학습자에게 낯선 것에 대해 좌절이 아닌 내재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심리정서적인 안정성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내재적인 학습 동기는 학습자의 뇌에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이라는 물질을 형성하게 하여 적절한 수준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입력된 정보에 대한 처리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Jensen, 1998; 이은상, 2009 재인용).

7)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감각기억, 작업 기억, 장기기억의 형태로 서로 연관되어 변환의 과정을 거쳐 저장되게 되는데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은 감각으로 받아들인 여러 정보들을 의식적으로 처리하려는 사고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작업 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정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키마가 정보를 부호화하여 처리하게 된다.

8) 청킹(chunking)은 단기기억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로, 기억 대상이 되는 자극이나 정보를 서로 의미 있게 연결시키거나 묶는 인지 과정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지 과정은 결과적으로 단기기억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용어에 대한 스키마를 획득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용어를 개별적 이해의 대상이 아닌 주도적 해석의 대상으로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역사용어 중 합성어로서 조어진 용어들은 스키마를 통한 용어 해석의 주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갑오개혁’이라는 역사용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 학습자는 ‘개혁’이라는 사고도구어의 뜻을 알고 있는 학습자라 할지라도, 용어를 학습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갑오개혁’의 뜻을 조사거나 설명을 듣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학습자에게 ‘갑오개혁’이란 용어는 4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오개혁’이 ‘갑오’+‘개혁’이라는 2+2 패턴으로 조어되어 있다는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개혁’이라는 사고도구어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갑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추론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며 학습과정 또는 학습 후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문장 속에서의 맥락적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학습자는 매일매일 새롭게 접하게 되는 많은 역사용어를 처리할 수 있는 주도적 학습자의 위치를 갖게 되는데, 역사용어가 학습자로 하여금 구조적 스키마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용어가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역사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로 조어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자문화권에선 한자어로 단어를 만들 때 일종의 성어(成語)적 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자성어(四字成語)이다. ‘왕권강화, 제정일치, 갑신정변, 삼국통일’ 등의 4자로 이루어진 많은 역사용어들은 사실 성어적 용법에서 가장 흔한 4자 성어적 방법을 차용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한자어의 조어 형성에 관련된 구조적 패턴을 분석해 낸다면 학습자의 역사용어 스키마 형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패턴이 무엇인가를 알아낼 수 있고 이를 역사용어 학습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한자어의 구조적 특징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언어적으로 독창적인 한글을 가지고 있지만 뜻을 구성하는 단어의 체제는 대부분 한자어와 소수의 고유어로 이루어져 있다. 한글이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표의문자인 한자의 뜻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또한, 한자어는 근본적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독립된 뜻을 가진 형태소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시키면 수많은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다(김정은, 1997). 이처럼 표의적인 조어 생산력이 뛰어난 한자와 표음적인 조어 생산력이 뛰어난 한글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많은 어휘를 만들어 내었으며 현재에도 만들어 내고 있다. 관련된 연구로 한글과 한자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조경래(2010)는 실제 실험을 통해 한글단어와 한자단어 간에 전이되는 변수로 의미변수가 지배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한글과 한자어의 연계성이 의미적이라고 분석 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은 한자어의 뜻을 바탕으로 조어되는 한글용어는 결국 한자어의

조어 패턴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는 조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자성어적인 표현이 매우 많은데 전문용어 및 한자어의 형태적 특징을 연구한 노명희(1998), 조은경(2000)의 연구를 참고하면 한자어는 용어를 구성하는 음절 또는 단어들의 구조적인 패턴에 따라서 단일용어, 합성용어, 파생용어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 가. 단일용어(single term)

한자어의 최소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는 일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자어 구조 연구의 기본이 되는 단위로 여겨졌으나 현재에는 비 1음절 단어도 단일어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역사용어로 표현하자면 난(亂)은 1음절 단일어, 개혁(改革)은 2음절의 단일어로 구분된다. '개혁'은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는 1음절인 改, 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형태소적인 분석은 언어학적 구분일 뿐이며 역사용어로 각각의 음절이 접사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2음절 단일어로 볼 수 있다. 사실 역사 교과서에도 2음절 용어가 단일어로 문장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말 한자어가 2음절 구성이 안정적인 구조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나 도량형(度量衡)과 같은 3음절 이상의 단일어도 나타난다. 단일어는 다른 용어의 구조적 패턴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의 역할을 하면서 자립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어와 합성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 나. 합성용어(compound term)

한자어의 조어적 특성상 대부분의 한자단어는 합성용어로 볼 수 있다. 언어학적으로 합성용어는 둘 이상의 어기가 결합하여 새로운 통합적 단위를 이루고 그 구성성분과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합성법에 따르는 대부분의 용어는 앞의 요소가 수식어가 되고 뒤의 요소가 피수식어가 되는 종속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대등 구조 및 병렬 구조의 형태도 관찰할 수 있다(조은경, 2000). 앞에서 예로 들었던 '갑오개혁' 역시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이라는 말로 풀어서 이해되기 때문에 종속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간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을 나타내는 용어는 종속적인 구조이다. '신분제도', '토지제도' 등의 용어는 대등적인 구조의 합성용어이고 합성용어의 구조적 패턴은 2+2의 사자성어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며 2+3, 3+2의 형태도 있으며 2+2+2 등의 확장적인 형태가 존재한다.

#### 다. 파생용어(derived term)

전문용어에서 한자가 접사로 기능할 경우 조어 생산력이 매우 풍부하게 되는 특징 때문에 많

은 한자어가 파생용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생용어의 기본적인 형태는 어기+한자 접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학(水學, 受學, 數學)과 같은 동음이의어적 성격을 가진 한자어가 한 부류이며 가면무(舞), 민속무(舞)와 같이 뜻을 더해주는 접미사의 기능을 한다. 역사용어에서는 주로 후자의 접미사적 역사용어가 사용되는데 화조도(圖), 문자도(圖), 작호도(圖)가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구조적 패턴은 접미사의 형태가 어기+1, 접두사가 1+어기 형태를 가지는 것이 한자어 접사의 전형적인 구조이며 예외는 없다(김정은, 1997).

노명희(1997)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실 합성용어와 파생용어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파생용어의 접사의 인정 기준 역시 많은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역사용어의 언어학적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 분석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어의 합성용어와 파생용어를 한자복합어라는 상위개념에서 하나의 응용용어로 간주하여 역사용어의 구조적 패턴을 분석하기로 한다.

### Ⅲ. 교과서 역사용어의 구조적 패턴 분석

#### 1. 연구방법 및 대상

현행 2007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5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1학기, 2학기 모두 역사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5학년 1, 2학기 사회 교과서 및 사회과 탐구 교과서 총 4권이다.

연구의 방법은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전사하면서 역사용어를 분류<sup>9)</sup>하고 <표 1>과 같은 세부 분류 기준으로 역사용어를 재분류하여 역사용어의 구조적 패턴을 분석하고 서술빈도를 조사하였다. <표 1>과 같이 역사용어 분류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자어가 단일용어, 합성용어, 파생용어로 조어되기 때문이며 구어는 합성용어의 특수한 경우이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역사용어의 서술빈도를 조사하는 것은 역사용어가 구조적 스키마를 통해 학습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기본용어를 선정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sup>10)</sup>

9) 본 연구에서는 사고도구어 중 합성어로서 역사용어를 형성하는 용어와 전문용어를 역사용어로 선정하고 분류하기로 한다.

10)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용어는 내용적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역사용어를 나열하는 방법은 한글 자음 ‘ㄱ~ㅎ’의 순서로 전사하여 나열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가장 많은 역사용어를 추출하였던 자음 ㄱ은 전사하여 역사용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실상을 관찰하고 그 구조적 패턴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ㄴ~ㅎ’에 해당되는 역사용어는 서술빈도가 높은 역사용어를 중심으로 구조적 패턴을 분석하기로 한다. 실제로 전사한 결과 ㄴ~ㅎ의 역사용어 역시 ‘ㄱ’에 해당하는 역사용어의 사용실태와 비교하여 그 수적인 차이가 있었을 뿐 동일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표 1〉 교과서 역사용어 분류 기준

대분류	소분류
단일용어	2음절, 1음절, 3음절 이상
합성용어	합성형태: 2+2, 2+2+2, 2+3, 2+2+3 등
파생용어	접두파생용어(+), 접미파생용어(+1)
구(句)어	어절의 수

단일용어의 경우 2음절의 용어를 기준으로 1음절과 3음절 이상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이유는 한자 자체가 비록 한 음절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의문자이긴 하나 국어화 된 한자어의 사용은 각각의 한 음절을 조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는 단어로 인식되어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단일용어를 기본적인 국어 단어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음절의 수에 따라 분류한 후 분석하기로 한다.

합성용어와 파생용어의 경우 단어의 형성 및 결합 패턴의 구조적인 공통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기로 하며 구의 경우는 결합의 형태가 어절의 형태로 되어 있는바 어절의 수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 2. 단일용어의 구조적 패턴 분석 및 빈도수 조사

2007 개정 사회과 교과서를 전사하여 단일용어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가구	2	1	고조	2	1	군정	2	2	개방	2	2
가마	2	1	고조선	3	40	군주	2	1	개선	2	6
가마니	3	1	고종	2	21	군함	2	4	개성	2	3
가문	2	1	곡식	2	12	규정	2	1	개척	2	1
가야	2	28	곳간	2	1	국	1	95	개최	2	1
가입	2	2	공(公)	1	6	국가	2	5	개통	2	6
가치	2	1	공(功)	1	1	국력	2	6	개항	2	16
각처	2	1	공로	2	1	국방	2	2	개혁	2	19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간섭	2	8	공맹	2	1	국왕	2	1	개화	2	6
간의	2	3	공예	2	3	군주	2	1	계기	2	2
간도	2	2	공자(公子)	2	1	궁	1	16	계엄	2	1
강탈	2	2	공자(孔子)	2	1	궁궐	2	16	깨우침	3	1
갈돌	2	3	공조	2	1	궁전	2	1	개입	2	1
갈관	2	3	공포	2	2	궁중	2	3	계층	2	3
갓	1	1	교류	2	35	규율	2	1	계양	2	1
갑옷	2	2	교리	2	3	규탄	2	1	과거	2	4
강압	2	3	교역	2	3	극복	2	7	관	1	1
강요	2	1	교체	2	1	근대	2	10	관가	2	3
강제	2	15	구결	2	1	근친	2	1	관군	2	10
강화	2	18	구성	2	1	금관	2	3	관기	2	1
거란	2	34	구실	2	2	금속	2	2	관례	2	2
거처	2	2	구원	2	1	금실	2	1	관리	2	50
거레	2	2	국경	2	1	금판	2	1	관아	2	1
건제	2	2	국군	2	8	기(器)	1	122	관직	2	12
검술	2	2	국권	2	4	기구	2	1	관청	2	2
결	1	1	국내	2	3	기반	2	5	관할	2	1
결사	2	1	국민	2	36	기사	2		광릉	2	2
결의	2	1	국산	2	1	기상	2	1	광복	2	14
경계(境界)	2	1	국왕	2	2	기생	2	4	광대	2	1
경계(警戒)	2	1	국외	2	7	기업	2	3	권위	2	2
경성	2	1	국토	2	5	기예	2	2	귀양	2	1
경제	2	11	국호	2	1	기와	2	1	권력	2	14
고구려	3	28	국회	2	9	기원	2	2	권리	2	7
고국	2	2	군	1	2	기초	2	1	권한	2	1
고난	2	2	군대	2	8	기틀	2	11	귀천	2	1
고누	2	4	군사	2	5	길쌈	2	1	권위	2	2
고대	2	1	군인	2	12	개간	2	1	권세	2	1
고려	2	168	군왕	2	1	개경	2	13	귀족	2	45
난(亂)	1	8	대외	2	8	법	1	5	백성	2	127
남	1	5	대통령	3	30	벽화	1	5	백자	2	6
남북	2	5	대항	2	11	복원	2	6	백제	2	59
논의	2	4	러시아	3	6	보급	2	5	베	1	11
농민	2	58	만주	2	10	봉기	2	16	사상	2	6
농업	2	18	명	1	5	부강	2	5	사신	2	17
단군	2	18	멸망	2	30	부대	2	12	사회	2	8
담판	2	5	목판	2	9	부처	2	5	상민	2	37
도성	2	5	묘	1	6	부패	2	5	상업	2	13
도시	2	28	무기	2	5	북한	2	35	서민	2	32
도읍	2	21	무력	2	5	분단	2	9	서양	2	56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도적	2	5	무신	2	11	불교	2	67	서원	2	10
독립	2	36	무역	2	16	불상	2	10	서울	2	12
동학	2	21	문물	2	39	비(碑)	2	8	서적	2	8
서학	2	26	영조	2	23	조상	2	17	과건	2	13
선거	2	17	영토	2	20	조선	2	201	편찬	2	14
선사	2	18	오랑캐	3	8	조성	2	5	평등	2	7
선조	2	7	온돌	2	5	조세	2	6	평민	2	11
선출	2	13	옹기	2	13	조약	2	5	평화	2	9
선포	2	10	유교	2	48	조정	2	5	폐지	2	6
설립	2	7	유물	2	26	죽보	2	10	풍속	2	6
성	1	7	유민	2	5	종교	2	19	필	1	6
성립	2	13	유산	2	5	종묘	2	6	탄압	2	10
소련	2	20	유역	2	10	주권	2	9	태조	2	9
수군	2	17	유학	2	5	주조	2	5	태종	2	7
수난	2	5	이주	2	8	주화	2	5	토지	2	13
수립	2	56	인식	2	5	자유	2	8	통상	2	12
수용	2	8	인재	2	10	자주	2	5	통일	2	6
수출	2	13	인조	2	5	장군	2	23	통치	2	5
수탈	2	5	일본	2	108	저항	2	9	투표	2	5
승려	2	8	일제	2	84	전쟁	2	66	학문	2	26
시기	2	13	임금(왕)	2	13	전통	2	8	학자	2	14
시대	2	56	임금(돈)	2	7	전파	2	5	한글	2	11
시민	2	19	왕	1	75	전투	2	31	한양	2	42
시위	2	15	왕권	2	16	절차	2	6	항복	2	8
신라	2	84	왕실	2	14	정벌	2	5	항일	2	16
신문	2	6	왕위	2	8	정복	2	5	행차	2	7
신분	2	58	외교	2	7	중국	2	33	헌법	2	7
신사	2	5	외국	2	9	중동	2	5	협상	2	8
신앙	2	5	외세	2	10	중앙	2	11	호족	2	9
신하	2	24	왜구	2	10	중인	2	9	혼란	2	15
실학	2	20	위협	2	5	즉위	2	6	효	1	6
세금	2	39	의거	2	15	지도	2	7	화성	2	17
세기	2	14	의병	2	16	지리	2	6	화약	2	10
세력	2	23	의사	2	14	지방	2	15	화포	2	6
세조	2	5	의의	2	5	지배	2	11	화폐	2	10
세자	2	5	의존	2	5	치별	2	24	활자	2	9
세종	2	11	재산	2	19	창시	2	5	황제	2	19
서얼	2	5	재판	2	5	창제	2	6	횡포	2	12
양반	2	65	전개	2	11	처형	2	6	후손	2	5
양인	2	9	전래	2	23	처벌	2	5	휴전	2	15
여진	2	9	전파	2	6	천도	2	5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용어명	음절수	빈도
역사	2	15	지원	2	7	천민	2	16			
연표	2	7	진압	2	5	철회	2	7			
연합	2	5	제도	2	14	철기	2	7			
영국	2	5	제사	2	19	침략	2	57			
영세	2	6	조직	2	8	침입	2	45			

단일용어의 경우 1음절의 용어들은 세 분류로 분석되었다. ‘갯’, ‘결’과 같은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되거나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첫 번째이며, ‘궁’, ‘기’, ‘군’처럼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다른 용어와 결합하여 파생용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접두어 혹은 접미어를 형성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궁’은 ‘건청궁’, ‘경복궁’, ‘창덕궁’ 등과 같이 많은 파생용어를 만들어내었으며 ‘기(機)’는 ‘거중기’ 등과 같은 도구 및 기계를 지칭하는 용어에 사용되었고 ‘기(器)’는 ‘청동기’, ‘철기’, ‘신석기’, ‘군’은 ‘고려군’, ‘조선군’, ‘일본군’, ‘연합군’ 등의 많은 파생적 용어를 형성하였다. 그 외에 ‘기(期)’, ‘관’, ‘국’, ‘왕’과 같이 파생적 성격의 단일용어로 사용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음절 용어들은 ‘초기’, ‘중기’, ‘후기’, ‘관청’, ‘관아’, ‘관리’, ‘중국’, ‘미국’, ‘왜국’, ‘왕실’, ‘왕권’, ‘왕위’ 등과 같이 접미 또는 접두적인 용법으로 파생용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일용어를 다수 생산해내는데 이는 역사용어에 필요한 특정한 한자가 다수 차용되어 조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를 파생용어로 분류하느냐 단일용어로 분류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단일용어로 분류하기로 한다.<sup>11)</sup>

2음절 단일용어의 경우 한자조어의 가장 안정적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수의 역사용어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역사용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고구려’, ‘깨우침’, ‘오랑캐’ 등의 나라명이나 고유어 등의 3음절 이상 단일용어들이 분류되었다.

### 3. 합성용어의 구조적 패턴 분석 및 빈도수 조사

2007 개정 사회과 교과서를 전사하여 합성용어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역사) 교과서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이 2음절의 파생적 용법을 파생용어로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교과서에 제시되는 역사용어들은 본 논문의 분류방법이나 국어사전과는 다르게 글자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2음절의 파생적 성격의 단일용어들은 단일용어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문제는 실제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어휘인지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빈도
가락바퀴	4	2+2	2	건국동맹	4	2+2	2	경제발전	4	2+2	20
가마술	3	2+1	1	건국준비위원회	7	2+2+3	1	경제위기	4	2+2	2
각계각층	4	2+2	5	건국이념	4	2+2	1	경제정책	4	2+2	3
강화도조약	5	3+2	19	건설노동자	5	2+3	2	경제수탈정책	6	2+2+2	4
강화읍성	4	2+2	2	건원중보	4	2+2	1	경제생활	4	2+2	11
갑신정변	4	2+2	15	경강상인	4	2+2	1	경제계획	4	2+2	1
갑오개혁	4	2+2	13	경국대전	4	2+2	16	경제사정	4	2+2	1
강강술래	4	2+2	1	경부고속국도	6	2+2+2	3	경제체제	4	2+2	2
강동6주	4	2+2	2	경성전환국	5	2+3	1	경제협력	4	2+2	5
강령탈출	4	2+2	1	경제유표	4	2+2	1	국회의원	4	2+2	5
거리응원	4	2+2	2	경제개발	4	2+2	4	군대해산	4	2+2	3
거주지역	4	2+2	1	경제개발계획	6	2+2+2	2	군사독재	4	2+2	1
건국강령	4	2+2	1	경제개발초기	6	2+2+2	1	군사정권	4	2+2	1
군사정변	4	2+2	3	국권강탈	4	2+2	1	근대학문	4	2+2	2
군수공장	4	2+2	2	국권상실	4	2+2	3	근대문물	4	2+2	11
군인정권시대	6	2+2+2	1	국민소득	4	2+2	3	근대사회	4	2+2	1
군정실시	4	2+2	2	국제사회	4	2+2	1	근대시설	4	2+2	3
국가경제	4	2+2	1	금속제품	4	2+2	2	금관가야	4	2+2	3
국가대표	4	2+2	1	금속화폐	4	2+2	2	금동대향로	5	2+3	2
국가방위	4	2+2	1	금속활자	4	2+2	13	금동미륵반가사유상	9	2+2+2+3	1
국가조직	4	2+2	1	금속활자본	5	2+3	1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11	2+2+3+2+2	1
국내정세	4	2+2	1	금제장식	4	2+2	1	나전칠기	4	2+2	3
국립현충원	5	2+3	1	긴급조치권	5	2+3	2	남북정상회담	6	2+2+2	7
국민통제	4	2+2	1	개발도상국	5	2+3	1	남북한	3	2+2	13
경제형편	4	2+2	1	개발정책	4	2+2	1	노비안전법	5	2+3	5
경제협력개발기구	8	2+2+2+2	6	개혁정책	4	2+2	1	농민봉기	4	2+2	8
고대문화	4	2+2	1	개혁정치	4	2+2	4	농사직설	4	2+2	7
고려청자	4	2+2	5	개화정책	4	2+2	4	단군왕검	4	2+2	8
고려초기	4	2+2	5	관공서	3(4)	2+2	1	독립신문	4	2+2	8
고려후기	4	2+2	3	과거제도	4	2+2	6	독립운동	4	2+2	18
고분벽화	4	2+2	2	과거시험	4	2+2	5	독립의지	4	2+2	5
고싸움놀이	5	3+2	2	관립학교	4	2+2	2	독립협회	4	2+2	8
고성오광대놀이	7	2+3+2	1	국제교류협력단	7	2+2+3	1	독재정치	4	2+2	5
고유모델	4	2+2	2	국제금융기구	6	2+2+2	1	동양척식주식회사	8	2+2+2+2	5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빈도
고위관리	4	2+2	1	국제사회	4	2+2	1	동학농민군	5	2+3	9
고정도르레	5	2+3	1	국제연합	4	2+2	12	동학농민운동	6	2+2+2	11
고창전투	4	2+2	1	국제연합군	5	2+3	6	대동여지도	5	2+3	10
곡창지대	4	2+2	1	국제연합총회	6	2+2+2	1	대외관계	4	2+2	12
곤여만국전도	6	2+2+2	7	국제통화기금	6	2+2+2	4	대한민국	4	2+2	68
공산전투	4	2+2	1	군사기지	4	2+2	1	대한민국 임시정부	8	2+2+2 +2	21
공산주의	4	2+2	2	군사재판	4	2+2	1	대한제국	4	2+2	29
공식행사	4	2+2	1	군사시설	4	2+2	6	러일전쟁	4	2+2	9
공훈배우	4	2+2	1	근대병원	4	2+2	1	마을제사	4	2+2	8
교육구국운동	6	2+2+2	1	근대교육	4	2+2	7	명성황후	4	2+2	5
교육제도	4	2+2	1	근대국가	4	2+2	6	모스크바3국 외상회의	10	2+2+2 +2+2	7
국내외	3	2+2	2	근대무기	4	2+2	1	무신정권	4	2+2	5
구식군대	4	2+2	7	근대신문	4	2+2	1	무신정변	4	2+2	12
구제금융	4	2+2	1	근대학교	4	2+2	7	문벌귀족	4	2+2	5
구제금융지원	6	2+2+2	1	광주시민	4	2+2	3	문화교류	4	2+2	5
구조조정	4	2+2	4	관혼상제	4	2+2	5	미소공동 위원회	7	2+2+3	8
국가기념일	5	2+3	3	권력유지	4	2+2	1	민주주의	4	2+2	28
국가건설	4	2+2	1	귀족정치	4	2+2	1	민주화운동	5	3+2	8
국가발전	4	2+2	1	귀족세력	4	2+2	2	민속놀이	4	2+2	9
국가인권 위원회	7	2+2+3	2	귀주대첩	4	2+2	2	민족기록화	5	2+3	12
국가정책	4	2+2	1	귀족사회	4	2+2	2	민족문화	4	2+2	5
민족지도자	5	2+3	5	실용학문	4	2+2	5	조선왕조	4	2+2	5
병인양요	4	2+2	11	새마을운동	5	3+2	12	조선시대	4	2+2	56
병자호란	4	2+2	38	세계문화유산	6	2+2+2	7	조선사회	4	2+2	11
봉오동전투	5	3+2	5	세도정치	4	2+2	10	조선어학회	5	2+3	6
부정선거	4	2+2	8	아라비아상인	6	4+2	7	조선수군	4	2+2	7
부흥운동	4	2+2	6	안시성대첩	5	3+2	5	조선전기	4	2+2	8
분청사기	4	2+2	6	애국계몽운동	6	2+2+2	5	조선후기	4	2+2	52
불교문화	4	2+2	5	애국지사	4	2+2	5	조선총독부	5	2+3	6
빗살무늬	4	2+2	8	양부일구	4	2+2	9	조세제도	4	2+2	6
사설시조	4	2+2	6	여진정벌	4	2+2	5	주권수호	4	2+2	5
4.19혁명	4	2+2	26	열하일기	4	2+2	5	지방관리	4	2+2	5
사회개혁	4	2+2	10	5.16군시정변	6	2+2+2	5	지방세력	4	2+2	5
산미증식계획	6	2+2+2	5	5.18민주화 운동	7	2+3+2	19	직지심체요절	6	2+2+2	6
살수대첩	4	2+2	5	유교전통	4	2+2	8	창씨개명	4	2+2	5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빈도
삼강행실도	5	2+3	7	유신헌법	4	2+2	6	청산리대첩	5	3+2	6
삼국시대	4	2+2	10	6월민주항쟁	6	2+2+2	20	청일전쟁	4	2+2	8
삼국유사	4	2+2	5	6.25전쟁	4	2+2	39	침략전쟁	4	2+2	5
삼국통일	4	2+2	22	을사조약	4	2+2	23	8.15광복	4	2+2	14
3.1운동	4	2+2	16	이산가족	4	2+2	6	팔만대장경	5	2+3	19
상공업	3	2+2	12	인재양성	4	2+2	5	토지제도	4	2+2	8
상평통보	4	2+2	13	임오군란	4	2+2	4	토지조사사업	6	2+2+2	8
서민문화	4	2+2	12	일제강점기	5	2+3	20	통일신라	4	2+2	27
서양문물	4	2+2	27	임시정부	4	2+2	12	통일정부	4	2+2	11
서양세력	4	2+2	5	임진왜란	4	2+2	50	한글소설	4	2+2	5
서울올림픽	5	2+3	10	왕권강화	4	2+2	16	홍선대원군	5	2+3	27
소현세자	4	2+2	5	외환위기	4	2+2	12	후삼국통일	5	3+2	13
시무28조	4	2+2	5	의병운동	4	2+2	6	훈민정음	4	2+2	30
신미양요	4	2+2	11	자주국가	4	2+2	5	휴전협정	4	2+2	8
신분상승	4	2+2	5	자주독립	4	2+2	18				
신분제도	4	2+2	13	정부수립	4	2+2	13				
신탁통치	4	2+2	6	정권교체	4	2+2	5				

합성용어를 결합패턴에 따라 분류한 결과 우선 2+2 형태의 4자 용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4자 용어의 사용은 앞서 살펴본 단일용어의 기본 패턴이 2음절일 때가 가장 많았던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가장 안정적인 조어 형태인 2음절 단일용어끼리 합성하여 2+2 형태의 4자 성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합성용어를 조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4자 성어적 형태의 합성용어의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갑오개혁’, ‘갑신정변’, ‘임오군란’, ‘임진왜란’ 등과 같은 간지를 사용한 합성용어들은 예외 없이 2+2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나라명이 들어가는 합성용어들과 시기를 나타내는 합성용어들, 예를 들어 ‘근대학교’, ‘근대신문’, ‘고려청자’, ‘고려초기’ 등은 대부분 2+2 형태의 구조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2+2 형태로 조어진 합성용어들의 많은 수가 합성되는 2자 용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귀족+2’, ‘국제+2’, ‘근대+2’, ‘2+제도’, ‘2+정책’, ‘군사+2’, ‘국가+2’, ‘개혁+2’, ‘금속+2’의 반복적인 4자 합성용어의 구조적 패턴은 수많은 합성용어를 단순하게 구조화 시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2+2 형태의 4자 성어적 합성용어 이외에 2+2+3 이나 2+3, 2+2+2 형태의 합성용어의 구조적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 중 2+2+2 형태의 합성용어는 2+2의 4자 성어적 합성용어를 확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2+3, 2+2+3과 같이 음절의 합이 홀수로 조어되는 합성용어들은 2음절의 단일용어와 3음절의 파생용어가 결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

군', '금동대향로', '건국준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용어들은 단일용어인 '국제', '금동', '건국', '준비', '국가', '인권'과 파생용어인 '연합군', '대향로', '위원회'가 결합된 용어이다.<sup>12)</sup>

마지막으로 '국내외', '관공서'와 같이 축약된 합성용어가 있다. 이 합성용어들의 음절은 3자이지만 원래는 '국내'+ '국외', '관서'+ '공서' 형태의 2+2 성어적 구조가 같은 말을 생략하여 3자로 굳어진 형태의 조어 패턴을 가지고 있다.

#### 4. 파생용어의 구조적 패턴 분석 및 빈도수 조사

2007 개정 사회과 교과서를 전사하여 파생용어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파생 형식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파생 형식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파생 형식	빈도
간섭기	3	2+1	접미	1	고구려군	4	3+1	접미	1	근정전	3	2+1	접미	2
감시하	3	2+1	접미	2	고등과	3	2+1	접미	3	금메달	3	1+2	접두	1
강녕전	3	2+1	접미	1	고려군	3	2+1	접미	3	기기창	3	2+1	접미	1
강대국	3	2+1	접미	3	고려말	3	2+1	접미	4	국경선	3	2+1	접미	1
강습회	3	2+1	접미	1	고인돌	3	2+1	접미	18	기념비	3	2+1	접미	1
갑인자	3	2+1	접미	1	골품제	3	2+1	접미	8	기념식	3	2+1	접미	2
거란군	3	2+1	접미	2	공무원	3	2+1	접미	1	기념일	3	2+1	접미	9
거란인	3	2+1	접미	1	공명첩	3	2+1	접미	16	기독교	3	2+1	접미	1
거북선	3	2+1	접미	4	공예품	3	2+1	접미	3	기본권	3	2+1	접미	1
거중기	3	2+1	접미	5	공포식	3	2+1	접미	1	기와집	3	2+1	접미	3
건청궁	3	2+1	접미	1	교태전	3	2+1	접미	1	기원전	3	2+1	접미	10
격전지	3	2+1	접미	1	교환원	3	2+1	접미	1	기원후	3	2+1	접미	1
결의안	3	2+1	접미	1	꽂보리밥	4	3+1	접미	1	개방성	3	2+1	접미	1
경계심	3	2+1	접미	1	구성원	3	2+1	접미	1	개신교	3	2+1	접미	2
경공업	3	1+2	접두	1	구원병	3	2+1	접미	1	개천가	3	2+1	접미	1
경복궁	3	2+1	접미	24	군사권	3	2+1	접미	1	개최지	3	2+1	접미	1
경부선	3	2+1	접미	1	국산화	3	2+1	접미	1	개통식	3	2+1	접미	1
경의선	3	2+1	접미	1	국유지	3	2+1	접미	1	개헌안	3	2+1	접미	5
경인선	3	2+1	접미	1	극빈층	3	2+1	접미	1	개혁안	3	2+1	접미	2
경운궁	3	2+1	접미	1	군사력	3	2+1	접미	3	개화기	3	2+1	접미	9
경제력	3	2+1	접미	2	근거지	3	2+1	접미	1	개화파	3	2+1	접미	11
경제적	3	2+1	접미	2	근대화	3	2+1	접미	10	계엄군	3	2+1	접미	11
계엄령	3	2+1	접미	3	부석사	3	2+1	접미	5	일본인	3	2+1	접미	23
파반수	3	2+1	접미	1	부산진	3	2+1	접미	5	왕세자	3	1+2	접두	5

12) '연합군'과 '위원회'는 접미파생용어이며 '대향로'는 접두 파생용어이다.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파생 형식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파생 형식	빈도	용어명	음절 수	구조적 패턴	파생 형식	빈도
관례복	3	2+1	접미	1	부녀자	3	2+1	접미	5	외교권	3	2+1	접미	7
광복군	3	2+1	접미	4	부처님	3	2+1	접미	5	의병장	3	2+1	접미	7
광화문	3	2+1	접미	1	북벌론	3	2+1	접미	5	자격루	3	2+1	접미	8
광혜원	3	2+1	접미	3	북학론	3	2+1	접미	5	자주적	3	2+1	접미	5
관장식	3	1+2	접두	1	북한군	3	2+1	접미	6	장군총	3	2+1	접미	5
광성보	3	2+1	접미	1	불국사	3	2+1	접미	6	장신구	3	2+1	접미	5
광혜군	3	2+1	접미	2	불평등	3	2+1	접두	5	전국적	3	2+1	접미	7
귀국길	3	2+1	접미	1	비파형	3	2+1	접미	3	전성기	3	2+1	접미	23
나랏일	3	2+1	접미	5	사법권	3	2+1	접미	5	제사장	3	2+1	접미	5
남연군	3	2+1	접두	5	사직단	3	2+1	접미	6	조선군	3	2+1	접미	8
남포동	3	2+1	접미	5	상소문	3	2+1	접미	5	지도자	3	2+1	접미	7
노동자	3	2+1	접미	5	석가탑	3	2+1	접미	5	지배자	3	2+1	접미	5
내란죄	3	2+1	접미	5	석굴암	3	2+1	접미	7	지배층	3	2+1	접미	8
다보탑	3	2+1	접미	5	선교사	3	2+1	접미	9	창덕궁	3	2+1	접미	5
당나라	3	1+2	접미	45	선서문	3	2+1	접미	5	청나라	3	1+2	접미	35
당백전	3	2+1	접미	5	선진국	3	2+1	접미	5	초가집	3	2+1	접미	5
덕수궁	3	2+1	접미	5	성리학	3	2+1	접미	5	초지진	3	2+1	접미	5
덧개돌	3	2+1	접미	5	소년단	3	2+1	접미	5	총선거	3	1+2	접두	9
도읍지	3	2+1	접미	9	소학교	3	2+1	접두	6	측우기	3	2+1	접미	5
독립군	3	2+1	접미	16	송나라	3	1+2	접미	16	팔관회	3	2+1	접미	7
돈의문	3	2+1	접미	5	수렵도	3	2+1	접미	5	평양성	3	2+1	접미	5
대왕암	3	2+1	접미	5	송례문	3	2+1	접미	5	평화적	3	2+1	접미	7
마을신	3	2+1	접미	5	식민지	3	2+1	접미	8	풍속화	3	2+1	접미	11
말갈족	3	2+1	접미	5	신민회	3	2+1	접미	5	탈놀이	3	1+2	접두	10
명나라	3	1+2	접미	17	신학문	3	1+2	접두	5	탕평비	3	2+1	접미	5
모내기법	4	3+1	접미	5	실학자	3	2+1	접미	42	탕평책	3	2+1	접미	9
몽골군	3	2+1	접미	11	생산량	3	2+1	접미	11	토막민	3	2+1	접미	5
문자도	3	2+1	접미	5	세계관	3	2+1	접미	5	토지세	3	2+1	접미	5
문화재	3	2+1	접미	37	언문지	3	2+1	접미	5	통신사	3	2+1	접미	5
민간인	3	2+1	접미	5	여진족	3	2+1	접미	6	호족제	3	2+1	접미	5
민주적	3	2+1	접미	5	연합군	3	2+1	접미	7	홍건적	3	2+1	접미	5
민주화	3	2+1	접미	11	연해주	3	2+1	접미	5	홍길동전	4	3+1	접미	5
민무늬	3	1+2	접두	5	영향력	3	2+1	접미	7	화조도	3	2+1	접미	5
반구대	3	2+1	접미	5	운동회	3	2+1	접미	5	후백제	3	1+2	접두	14
별기군	3	2+1	접미	5	육두품	3	2+1	접미	5	후백제군	4	1+3	접두	5
본존불	3	2+1	접미	5	이양선	3	2+1	접미	5	후삼국	3	1+2	접두	13
봉기군	3	2+1	접미	5	일본군	3	2+1	접미	52					

파생용어<sup>13)</sup>는 사실상 합성용어의 특별한 형태로 주로 3음절의 용어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앞서 밝힌 2음절의 안정화된 단일용어+1음절 접사의 결합의 형태로 분석된다. 파생용어는 파생형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2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접미 파생용어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사실상 파생용어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역사용어는 접미 파생용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미 파생용어는 2음절의 단일용어+1음절의 접미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 패턴이 일반적이며 ‘고구려군’이나 ‘꽁보리밥’, ‘홍길동전’ 등과 같이 국명, 성명, 고유어+1의 형태로 3음절 이상의 단어로 조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음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1+2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접두 파생용어의 형태를 가진 용어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쓰임새가 한정적이고 그 숫자 역시 한정적이다.

이러한 파생적 용법의 파생용어는 합성용어와 마찬가지로 조어적 기법을 통해 엄청난 숫자의 단어 및 개념용어들을 형성할 수 있는데 파생적 용법의 용어는 합성용어에 비해 좀 더 쉽게 용어를 형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러한 조어적 특징을 알고 역사용어를 접한다면 기존의 역사용어 학습과는 다르게 용어에 대한 구조적 패턴 즉 역사용어 스키마를 바탕으로 해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학습자 나름대로의 새로운 역사이해의 방법으로서 역사용어를 창출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 5. 구(句)어의 구조적 패턴 분석

2007 개정 사회과 교과서를 전사하여 구 용어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어명	음절수	어절수	용어명	음절수	어절수
국민의 정부	5	2	근대화 운동	5	2
금모으기 운동	6	2	가난한 계층	5	2
망이·망소이의 난	7	2	홍경래의 난	5	2

13) 고영근(1989)의 파생접사에 대한 연구는 파생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인 접사에 대한 모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한자어의 어근과 접사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조은경(2000) 역시 한자어의 접사적 단어 선정의 기준 및 학계의 인정이 논란이 있다고 하였으며 한자어 접미사를 어근적 단위의 뒤에서만 단음절의 형태로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는 다소 단순한 기준으로 보면 전문용어의 형성에서 파생법은 매우 생산적인 용어 형성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문적 영역에서 한자어 접미사 활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언어학적 연구가 아닌 역사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학습자에게 용어의 구조적 패턴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접미 또는 접두에 위치한 1음절의 반복적 쓰임새를 가진 한자어를 파생용어적 접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학적 구분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구(句)어의 사용은 그 빈도수에서 매우 적게 사용되었다. 그 구조적 형태에서도 2어절의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쓰이는 목적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지칭(금모으기 운동, 근대화 운동)하거나 역사적 서술에 필요한 경우(가난한 계층, 국민의 정부)에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6. 초등 사회과의 역사용어 학습방안

역사용어를 단일용어, 합성용어, 파생용어, 구(句)어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일정한 구조적 패턴에 따라 조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패턴은 학습자에게 역사용어 학습의 스키마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러한 역사용어의 구조적 스키마는 많은 수의 역사용어를 단순화하고 공식화하여 학습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용어 학습의 방향전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 ‘삼국사기’, ‘홍익인간’ 등은 잘 알려진 합성용어인데 기존에는 이 용어들을 모두 개별적 및 수동적으로 학습하여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어 학습 방법이었다.<sup>14)</sup>

이 세 용어는 동일한 구조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세 용어 모두 2+2 형태의 용어이며 ‘삼국+유사’, ‘삼국+사기’, ‘홍익+인간’의 구조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용어의 구조적 특징을 알게 되면 학습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용어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며 단어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게 된다. 합성용어적인 성격의 용어를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습자들에게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용어의 기초적인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형태를 스키마로 형성한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서 여러 용어를 재생산할 수도 있게 된다.

역사용어의 구조적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자어로 이루어진 역사용어가 조어된 글자이기에 일정한 구조적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파악한다면 학습자가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 그 패턴에 따라 뜻을 유추하고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스키마를 획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습자에게 적용 가능한 ‘언어적 스키마 활용용 역사용어 학습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4) 학습자가 용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 이해 단계가 첫 번째이며 용어의 맥락적 이해 단계가 두 번째이다. 학습자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맥락적 이해의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역사용어의 맥락적 이해 단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일차적인 용어 의미 이해 단계에서 언어인지학적 스키마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학습자에게는 용어의 맥락적 이해를 위해 일차적인 용어 의미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 가. 기본용어 설정

앞에서 분석한 역사용어에서 단일용어 중 내용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서술빈도가 높은 용어들은 학습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기본용어로 설정하여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혁’, ‘시대’, ‘수탈’, ‘근대’ 등의 2음절 용어는 사용 빈도수가 매우 높으며 학문적 중요성 역시 매우 높다.<sup>15)</sup> 이러한 용어들은 초등학교 학습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역사용어로 선정하여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파생용어를 구성하는 접사의 기능을 하는 1음절의 용어 역시 기본용어로 설정하여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난’, ‘왕’, ‘기(期, 器)’, ‘론’, ‘안’, ‘층’ 등의 서술빈도가 높은 파생용어를 구성하는 1음절 용어는 학문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용어들이다.

단일용어 중 기본용어를 설정하여 학습한다는 것은 역사 교과서의 서술을 직접적으로 해석한다는 의미와 함께 파생용어와 합성용어를 구조적 패턴의 스키마를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용어 학습의 전제조건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학습방안으로 기본용어를 교과서에서 별도로 용어 학습 코너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sup>16)</sup> 교과서에서 기본용어로 설정된 단일용어를 학습자들에게 해당 용어가 서술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용어 학습을 실시하고 용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장으로 연습한다면 학습자의 용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용어의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던 특징적인 사실은 역사 교과서에서 빈출되는 역사용어의 대다수는 일정한 시대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립’이라는 단일용어는 구한말~일제강점기 시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개혁’이라는 단어는 구한말 시대에만 사용되었으며 ‘식기’, ‘청동기’ 등의 용어는 선사시대와 청동기 시대에만 사용되었다. 그에 반해 ‘전쟁’이라는 단어와 ‘백성’, ‘교류’와 같은 단어들은 전 시대에 걸쳐 고루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일용어는 범 시대적으로 사용될 단어와 시기별 또는 교과서 단원별로 구성되어야 할 단어를 구분하여 학습해야 한다.

15) 어떤 용어를 기본용어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하나의 예시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용어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나타내고자 하나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다만,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용어는 내용적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16) 실제로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일반사회, 지리 분과의 교과서 체계에서는 용어 학습을 교과서의 내용 구성 체계 중 하나로 구성하였는데 반해 정작 이들 분과보다 매우 많은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배려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교과서 내용 구성 체계는 교과서의 주된 사용자인 초등학교 학습자에게 역사용어 학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의 교과서 역시 역사, 지리, 일반사회 영역의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 또는 사실 용어들을 vocabulary 코너에서 따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MACMILLAN McGRAW-HILL사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파악함.).

## 나. 합성 및 파생용어의 구조적 패턴 학습<sup>17)</sup>

기본용어 학습과 함께 또는 학습 후 파생용어와 합성용어의 구조적 패턴 역시 용어 학습의 일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고려하여 학습해야 하며 합성용어인 ‘동학농민운동’과 파생용어인 ‘개화기’ 용어를 예로 들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파생용어와 합성용어는 모두 합성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용어를 결합 패턴으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고유명사나 지명, 성명, 국명 등을 제외한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2음절씩 나누어 용어를 확인해야 하고 파생용어는 1음절의 접사를 확인해야 한다.

동학/농민/운동(빈도수: 11회)
개화/기(빈도수: 9회)

둘째, 용어의 음절이 홀수이면 파생용어, 단일용어+파생용어로 조어되어 있는 구조이고, 용어의 음절이 짝수이면 단일용어, 단일용어+단일용어가 조어되어 있는 구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구조적 패턴을 파악한다.

동학/농민/운동: 합성용어(‘농민’ 빈도수: 58회)
개화/기: 파생용어(‘기’ 빈도수: 49회)

셋째, 파생용어는 2+1 또는 1+2의 구조로 합성용어는 2+2 또는 2+2의 확장적인 형태로 조어되며 확장적 형태의 조어 패턴은 2+3+2, 2+2+2 등으로 짝수+홀수 패턴, 짝수+짝수 패턴의 두 형태로 조어되는데 홀수는 단일용어에 파생용어가 결합된 형태이며 짝수의 형태는 단일용어들로 조어진 패턴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본용어(‘농민’, ‘기’)를 바탕으로 역사용어의 구조적 스키마를 활용하여 파생용어와 합성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추론한다.

<b>동학/농민/운동: ‘농민’ 기본단어, ‘운동’ 기초어휘 단어</b>
‘동학’의 뜻을 몰라도 ‘농민’과 ‘운동’의 뜻을 결합하여 농민들의 어떤 집단적 활동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음
<b>개화/기: ‘기’ 기본단어</b>
‘개화’의 뜻을 몰라도 ‘기’를 바탕으로 개화기는 어떤 시대를 뜻하는 용어로 추론 가능함

17) 구 용어는 음절이 아닌 어절의 수로 구조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나 결국 기본용어, 합성용어, 파생용어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용어의 학습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학습의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거나 추론했던 용어의 이해를 학습과정을 통해 맥락적인 이해로 확장해 나간다.

<u>동학/농민/운동</u>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탐관오리에 대항한 농민운동
<u>개화/기</u> 조선의 문을 연 개항 이후로부터의 시기

다섯째, 용어의 스키마를 활용하여 기존의 용어를 대체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용어를 조어해 보고 맥락적 의미를 살펴본다.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활동, 동학/농민/혁명, 임진/의병/운동 등
개화/기: 점령/기, 전성/기, 오픈/기 등

기본용어 학습과 합성 및 파생용어의 구조적 스키마를 학습한 학습자는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용어의 습득자에서 용어의 해석자로 역할을 전환하게 된다. 용어의 해석자로서의 학습자 역할은 현행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전히 암기위주로 평가받는 역사교육에서 암기할 내용은 결국 역사용어의 암기이다. 용어의 암기란 맥락적 이해를 동반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부호화되어 저장될 수 있다. 스키마를 획득한 학습자는 주도적 용어 해석을 통해, 용어를 효과적으로 장기기억 속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많은 합성용어적인 역사용어를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스키마를 통해 접근하여 해석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스키마를 통해 다양한 역사용어를 학습자 스스로 조어해서 창의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초등학교 학습자의 역사학습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과다의 문제의 근저에 역사용어의 과다 및 이해의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의 역사 서술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용어의 이해가 필수적인데 역사용어에 대한 이해가 곧 역사적 사고력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이문기, 2005).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용어가 결국 학습자에게 장기기억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이고 궁극적인 용어 학습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용어 자체가 장기기억 중 의미기억의 형태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의 효과일 수밖에 없는데, 박행숙(2005)은 '초등학교 학습자들의 용어 이해 연구'에서 '왕'과 '백성'을 예를 들며 '혁명'이나 '강화' 등의 단어보다 '왕'과 '백성' 등의 용어가 학습자의 이해가 높다고 분석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결과를 용어의 접촉빈도에서 찾았다. 따라서 역사용어라는 전문적 용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학습자로서 용어 자체의 의미기억이 장기기억으로 전환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용어 자체의 의미기억과 함께 용어의 구조적 패턴에 대한 스키마를 획득하는 것이 학습자의 용어 의미기억의 제한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역사 서술의 목적이 텍스트의 이해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과 변화를 관찰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모든 용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행 역사 교과서에 서술된 역사용어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 하나로 일회성의 용어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18)</sup> 이러한 일회성의 용어들은 지금까지의 개별적 역사용어 학습의 입장에선 학습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역사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학습자에게 엄청난 학습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구나 초등학교 학습자에게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역사용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는 교과서의 서술(이문기, 2005)은 교사나 학습자에게 수많은 개별적 역사용어를 암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시대상을 이해하려는 역사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을 고려하면 교과서에 서술된 모든 역사용어를 개별적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용어를 해석하여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역사용어들의 구조적 패턴에 대한 스키마가 형성된다면 학습자의 해석적 텍스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사용어에 대한 구조적 스키마를 학습자가 인지한다는 것이 곧 학습자의 맥락적인 역사용어 이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용어의 구조적 스키마를 활용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역사 서술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전적 또는 기본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수준을 뜻하며,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학습과정을 통해 맥락적인 역사용어 이해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스키마를 통해 기본적 수준의 용어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탈 맥락적이고 비역사적인 이해가 바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과정에서는 언제나 내포될 수 있는 것으로 학습의 과정을 통해 맥락적인 역사용어 이해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학습자의 역사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18) 교과서 서술에 사용된 역사용어의 50% 이상이 1회 또는 2~3회의 서술빈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 장의 '교과서 역사용어 분류표' 중 자음 'ㄱ'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ㄴ~ㅎ'에 해당하는 역사용어 역시 자음 'ㄱ'의 결과가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었을 뿐 일회적인 역사용어 사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개정 사회과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전사하여 텍스트에 사용된 역사용어를 분류하고 서술빈도와 그 구조적 패턴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용어는 2음절로 구성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한자어의 조어적 안정성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1음절의 단일용어는 사물을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제외하고는 파생용어의 접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2음절의 단일용어는 합성용어와 파생용어를 형성하는 어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1음절의 파생용어의 접사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단일용어 중 서술빈도가 높은 용어를 선택하여 초등학교 학습자들이 학습해야 할 기본용어로 선정 및 학습한다면 명확한 용어 학습의 방향 설정과 더불어 학습자의 역사용어 스키마를 형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언어적 기초를 세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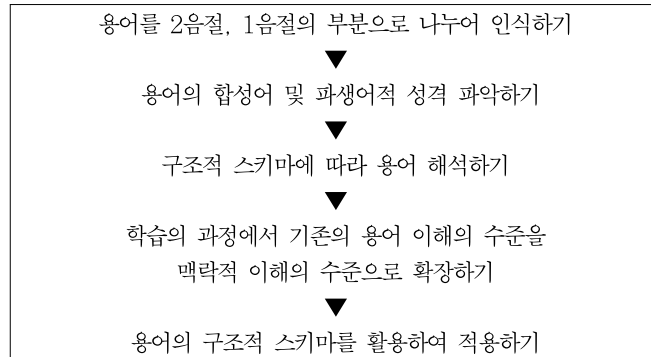
둘째, 합성용어는 2+2의 성어적 패턴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2+2+2의 형태로 확장된 경우도 있었다. 2+3이나 2+2+2와 같은 홀수로 조어진 합성용어는 대부분 단일용어+파생용어의 형태로 조어되었다. 따라서 합성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단일용어+단일용어 또는 단일용어+파생용어의 구조적 패턴에 따라 분류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일용어의 학습이 되어 있는 학습자는 합성용어를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구 용어 역시 합성용어적인 패턴으로 해석 가능하다.

셋째, 파생용어는 대부분 3음절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두 파생용어보다 접미 파생용어의 수가 매우 많았다. 접미 파생용어는 어간+접사의 형태로 2+1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에 해석상에서 단일용어+접사의 형태로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과서에 서술된 역사용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역사용어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과서에서 서술된 빈도수를 준거로 제시된 기본용어는 필수적으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필수용어로 선정하고 교과서에서 용어가 서술되는 내용영역에서 반드시 필수용어 학습으로 진행해야 한다.

둘째, 기본용어 학습과 함께 합성용어와 파생용어의 구조적 스키마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학습자가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학습해야 한다.



〔그림 1〕 스키마를 활용한 역사용어 학습의 과정

기본용어로 제시되어 있는 단일용어를 학습한 학습자가 구조적 패턴을 알고 있는 합성용어와 파생용어의 역사용어를 접하게 되면 언어학적 스키마를 활용하여 역사용어를 해석하고 주어진 텍스트를 학습자 주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과정을 통해 맥락적인 역사용어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가 합성용어와 파생용어를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단일용어로 이루어진 기본용어가 계속적으로 합성용어와 파생용어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일정한 구조적 패턴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한자로 이루어진 역사용어의 구조적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 학습자의 용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조적 패턴을 스키마에서 적용하려면 학습자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용어들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 이은상(2009)은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으로 반복적인 학습을 꼽고 있는데 사실상 용어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은 역사용어를 연구한 모든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본역사용어의 선정 을 위해 교과서에 서술된 빈도수를 준거로 활용하였는데 내용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용어가 교과서에 반복적으로 서술되었을 것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필수적인 기본단어에 대한 논의는 내용적 타당성 및 역사적 중요성, 학습자의 발달적 단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등학교 사회과 교사용 해설서**. 서울: 두산동아.
- 고영근(1989). 파생접사의 분석문제. **어학연구**, 25(1). 서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구난희(2007).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관련 서술의 양상 변화와 요인. **사회과교육연구**, 7(4), 35-56.
- 김민지(2006). 중,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역사용어 문제: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역사용어 서술 실태와 개선방안. **역사교육논집**, 37, 3-48.
- 김정은(1997). 한국어 파생용어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22, 91-139.
- 김한중(1995). 피아제의 인지발달론과 역사교육연구. **사회과학교육연구**, 1, 19-68.
- 김한중(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서울: 선인.
- 김혜인(2009). 어휘 제시 방법이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 309-339.
-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박희무(2004). 학습자 특성에 따른 지구과학 관련 영역의 한자 과학용어에 대한 이해 수준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행숙(2005).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역사용어 이해 수준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성혜진(2005). 제7차 중학교 『사회 I』 교과서의 자연지리 용어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송현주(2011). 국어 구조와 의미 간의 동기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 신명선(2004). 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유성호, 박영민, 유충열(2005). 학습용어 설정을 통한 국어교과서 진술의 개선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30, 53-89.
- 유정순(2005).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역사용어 이해실태와 개선방안. **역사교육논집**, 35, 107-155.
- 유채(2011). 한·중 한자 사자성어(四字成語) 비교연구: 형태와 의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 이문기(2005). 국사교과서의 역사용어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모색. **역사교육논집**, 1-40.
- 이선미(2008).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역사용어에 대한 연구: ‘애국계몽운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연우(2008).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사고도구어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카톨릭대학교.



- 이영호(2003). 내러티브 양식의 역사서술체제. **사회과교육**, 41, 93-121.
- 이은상(2009). 스키마 활성화의 뇌과학적 이해와 교육적 시사점.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의한(2007). 한국지리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지형 관련 용어에 대한 재검토. **교육과정평가연구**, 10(1), 173-187.
- 장슈엔원(2010).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전공별 한자어 교육 연구: 인문·상경 계열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 정선영(1994). 역사용어의 성격과 그 교육적 이용. **역사교육**, 56, 163-171.
- 정선영, 김한중, 양호환, 이영호(2011). **역사교육의 이해**. 서울: 삼지사.
- 정진우, 조현준, 박숙희(2007). 중학생들의 학습 양식과 과학에 대한 태도에 따른 한자기반 지구 과학용어에 대한 이해. **한국지구과학회지**, 28(1), 24-34.
- 정필레(2012).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한자어 분석을 통한 한자 교육: 6학년 사회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 조경래(2010). 한글어의 언어심리학적 분석: 한글어에 대한 한자어, 순수한글어, 영자어의 비교. 박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 조은경(2000). 전문용어의 어휘형태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주웅영(2006). 초등 사회과 어휘 교수의 전략 탐색. **사회과교육연구**, 13(3), 1-25.
- 주웅영, 전혁진(2008).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의 어휘 분석과 교수·학습자료와의 관련성 탐색. **사회과교육연구**, 15(1), 137-161.
- 최은동(2008). 한자를 이용한 과학 용어 학습이 학생들의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논문, 단국대학교.
- 한정운(2008). 중학교 국사교과서 용어 이해 실태: 충남 아산지역 5학년부터 9학년 학생과 중학교 교사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16, 79-114.
- 김유미 역(2000). **두뇌기반교수**. 서울: 푸른 세상. Jensen, E. (1998). *Teaching with the brain in the mind*. Virginia: Alexandria.
- E. A. Peel. (1965). *Problems in the Psychology of History Teach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Keith C. Barton. & Linda S. Levstik. (2004). *Teaching History for the Common Good*. New Jersey: LEA Publisher.
- Kieran Egan. (1989). Layers of Historical Understanding.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152(4), 280-294.

· 논문접수: 2012-05-01/ 수정본 접수: 2012-06-15/ 게재승인: 2012-06-18

## ABSTRACT

The historical terms used in elementary school history textbook revision in 2007 analysis of the structural patterns.

Young-Tae Im  
(Teacher, Balsan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terms in the society(history area) text book used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structural pattern in order to figure out whether the method used by the learner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terms can be changed from personal understanding to structural understanding.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have transcribed the text book and extracted the historical terms, classified the Sino-Korean words into single, composed, derived terms, and analyzed their linguistic pattern. As a result most of the single terms were consisted mainly of 2 syllables and the composed terms were analyzed to have 2+2 single+single term pattern, 2+3+2 single+derived+single pattern, 2+2+2 extensive pattern, and so on. Also the derived terms mainly consisted of 3 syllables of single term(stem)+affix in 2+1 or 1+2 form and most of them were composed of suffix. Therefore, if we use structural pattern of the historical terms as a cognitive linguistics schema with the basic historical terms study, it will be effective in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terms.

Key Words : The historical terms, structural pattern, schema, The single terms, The composed terms, The derived terms